

03

Style 조선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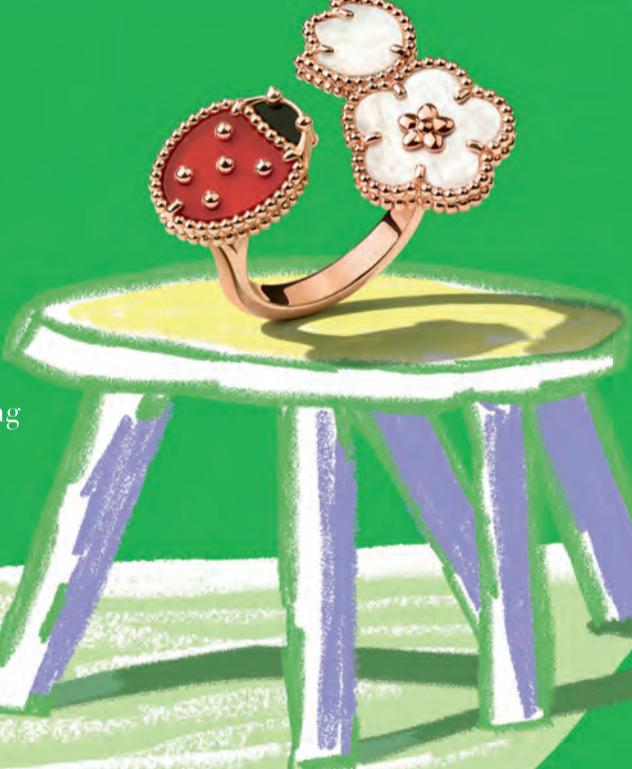
March 2025
vol. 282

Ultimate
Luxury Lifestyle
Magazine

The best of new

EDITION

Lucky Spring
Between the Finger Ring



Spring is Blooming
Van Cleef & Arpels

Haute Joaillerie, place Vendôme since 1906





DIOR

LA D MY DIOR
STEEL WITH "CANNAGE" PATTERN

CELINE

CELINE.COM





CHANEL.COM CUSTOMER CARE CENTER 080-805-9628

CHANEL

THE PREMIÈRE WATCH
프리미에르 워치
ÉDITION ORIGINALE

Contents

MARCH 2025 / ISSUE.282

10_SELECTION 1 베이지부터 블루까지, 차분한 컬러와 단정한 아이템이 만난 남성의 드류어룩.

12_SELECTION 2 뉴트럴 컬러와 클래식한 디자인, 절제된 실루엣의 조합으로 완성한 드류어룩.

13_DAZZLING MOMENT 따뜻한 황금빛과 눈부신 광채를 뿜내는 다이아몬드의 우아한 하모니.

14_INSIGHT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16_‘치유’를 기다리는 대지와 공간, 예술로 보듬어가다 작년 1월 태국 방콕에 문을 연 앤 아트센터 방콕 쿤스트하alle(Bangkok Kunsthalle)는 현대미술 전시와 강연, 퍼포먼스, 영화 상영 등 다채로운 활동이 펼쳐지는 전천후 플랫폼이다. 그 배경에는 한국계 태국인 자선사업가이자 문화 예술 후원자 마리사 치아라와논(Marisa Chearavanont)이 2023년 말 설립한 비영리기관 카오 아이 아트(khao Yai Art)가 버티고 있다. 방콕과 카오아이를 오가는 여정 속에서 마리사 치아라와논을 만났다.

20_SYMPHONY OF SPRING 반클리프 아펠 럭키 스프링 컬렉션은 메종의 소중한 두 가지 테마인 자연과 행운이 어우러진 작품으로서 정적인 세계와 삶을 향한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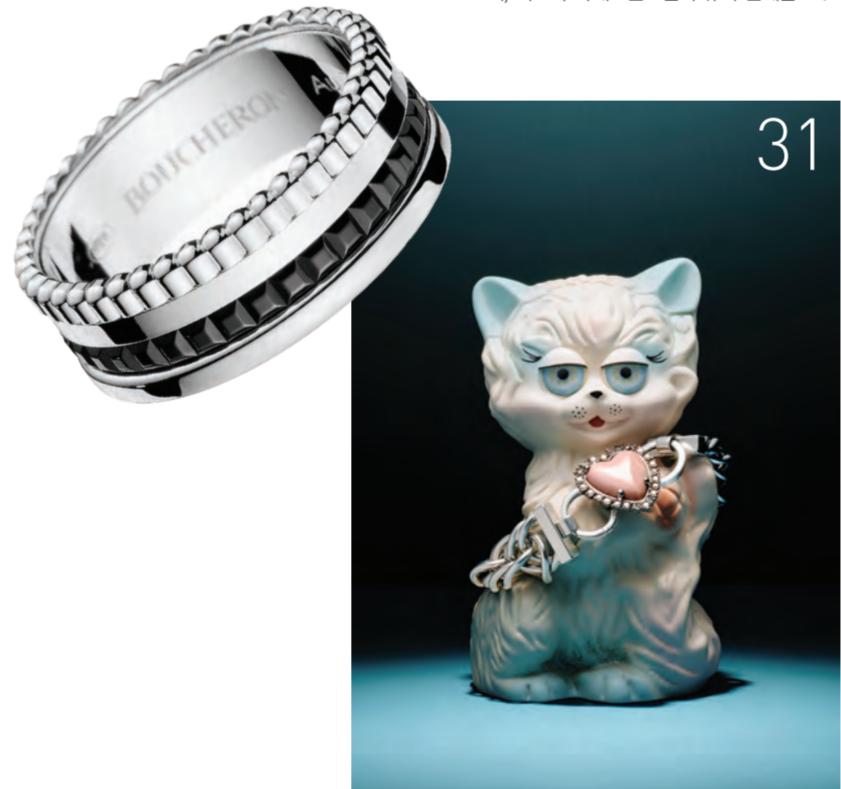


18

32

03 Style
Instagram.com/stylechosun
(스티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 언제 어디서나 읽으실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티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티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kr

반클리프 아벨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며 다가오는 봄을 맞이한다. 럭키 스프링 컬렉션은 메종의 소중한 두 가지 테마인 자연과 행운이 어우러진 새로운 작품으로서 정적인 세계와 긍정적인 비전을 구현한다. 사진 속 아이템은 18K 로즈 골드, 캐닐리언, 오너스로 장식해 메종의 아름다운 세계를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는 무당벌레와 매화꽃 모티브의 럭키 스프링 비트윈 더 팹거 링. 문의 1877-4128



31

Style 조선일보

대표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김유미 ymkim@chosun.com 아트+컬처 디렉터 고성연 amazing@chosun.com 패션 뷰티 디렉터 성정민 sjm@chosun.com 에디터 김하연 stylechosun.khy@gmail.com 윤지경 yjk@chosun.com 디자임 에디터 신정임 sj@chosun.com 디자인 나는컴퍼니 교열 이정현 수정 박민정 광고·마케팅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ns@chosun.com 이정희 jjh5567@chosun.com 유우희 whyoo@chosun.com 제작 김현기 hgkim@chosun.com 재무 노연경 분쇄·제판 덕일 인쇄 타라티피에스 기사 및 광고 문의 02-749-5665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페리온 비즈니스센터 110호

02 3143 9486



NUDO COLLECTION

Pomellato
MILANO 1967

POMELLATO.COM



Selection *for him*

베이지부터 블루까지, 차분한 컬러와 단정한 아이템이 만난 남성의 드류어룩.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YOON JIYOUNG**



고시스이원 · (주)에스제이드크 02 2106 3577



S_TDUPONT



for her Selection

뉴트럴 컬러, 클래식한 디자인, 절제된 실루엣의 조합으로 완성한 드레스.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YOON JI YOUNG





Across the Universe

대담함과 절제미가 조화를 이루는 우아함의 상징 에르메스의 아쏘 워치에서 월식과 반짝이는 빛의 효과를 담은 아쏘 블랙풀을 출시했다. 천체의 아름다움을 섬세하게 표현한 아쏘 워치답게 38mm 케이스에 신비로운 우주를 모던하게 표현한 점이 인상적이다.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스틸 케이스에 딥 블루 톤 다이얼을 매치하고 15개의 다이아몬드를 비대칭적으로 세팅해 마치 월식과도 같은 음영을 심플하게 표현했다. 10시 방향에 드러난 문페이즈는 천체의 신비스러움을 더욱 부각한다. 에르메스 매뉴팩처 H1837 셀프-와인딩 무브먼트로 작동한다. 문의 02-542-6622



우아하고 대담하게

티파니가 가수 퍼렐 윌리엄스와 만나 새로운 담수 진주 컬렉션을 출시했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삼지창에서 영감받았으며, 진주의 부드럽고 둥근 형태와 날카로운 삼지창을 형상화한 세이프가 극명한 대조를 이뤄 유니크하다. 11mm 이상의 타히티 진주를 사용하며, 회색을 필두로 녹색, 보라색 등 다채로운 컬러 스펙트럼을 자랑한다. 퀴커이, 펜던트, 네크리스, 브레이슬릿 등 총 다섯 가지로 선보이는데, 그중에서도 진주와 규칙적으로 교차된 18K 골드 스파이크 롱밀의 네크리스와 브레이슬릿은 색다른 멋을 선사하니 눈여겨보자. 문의 1670-1837

Insight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생명의 컬러

디올 하우스의 아이코닉한 코드를 풍성하게 녹여낸 치프레 루즈(Chiffre Rouge) 워치 컬렉션에 신제품 하나가 추가되었다. 이번에 공개한 치프레 루즈 워치는 무수 디올이 사랑한 숫자 8에 그가 생명의 컬러로 여긴 레드 색조를 더해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디자인을 자랑한다. 다이아몬드 및 로즈 골드 포인트가 돋보이는 38mm 케이스, 0.1초 단위까지 측정 가능한 탁월한 무브먼트를 장착한 41mm 크로노그래프 버전 등 총 세 가지로 만나볼 수 있다. 디올 아틀리에의 정교한 기술을 느껴보자. 문의 02-3280-0104



BATH TIME



하루의 피로를 개운하게 씻어줄 뷰티템. (왼쪽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사넬 N°5 바디 크림 장미와 재스민에서 추출한 활성 성분이 촉촉한 보습감을 선사하여 물로 펼쳐질 때 진한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보디크림 150g 13만3천원. 문의 080-805-9638 디올 뷰티 자도르 꿀든 쉬머링 젤 진주빛 피그먼트와 24K 골드 입자를 더해 피부에 광채를 선사하며 신뜻한 사용감이 특징. 100ml 11만3천원대. 문의 080-342-9500 오피신 유니버설 불리 셀 드 레드 오도리페랑 센티드 베스솔트 페루 헬리오토로프 미네랄 성분이 들어 있는 프링스톤 캐리드 솔트가 피부에 힘력을 준다. 500g 5만2천원. 문의 031-688-5551 러쉬 베어 허그스 캔디 베어 귀여운 곰돌이 오브제가 물에 녹으면 펼쳐지는 디자인은 베스 이트가 보는 재미를 더한다. 3ea×1세트 39만7천원. 문의 1644-2357 딥티크 오르페옹 클렌징 핸드 앤 바디 젤 살기한 거품과 사이버 성분으로 건조함 없이 모공 속 노폐물까지 깨끗하게 세정해준다. 200ml 7만1천원. 문의 02-3479-6049 포토그래퍼 최민영 에디터 신정임



Not Just Any Bag

늘 입던 스타일이 지겹다면, 드레스 룸에 특별한 세이프의 기방을 들여보는 건 어떨까. S. T. 듀퐁의 엑스-백은 필기구와 라이터에 새긴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기요세 패턴을 재해석했으며, 사다리꼴 세이프와 V 클로저, 가방 전면의 음각 처리한 X 라인이 포인트다. 미디엄과 스몰 사이즈로 구성되며 사이즈별로 블랙, 브라운, 화이트, 핑크, 레드, 그레이로 선보여 선택의 폭을 넓혔다. 올봄 가방 하나로 존재감 확실한 스타일을 시도해볼 것. 문의 02-2106-3596

한 줄의 기록

새로운 마음가짐을 기록해줄 다이어리와 웹.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만든 종이로 제작했으며, 화려한 블루 아라베스크 모티브로 커버를 완성한 A5 크기의 팬더 드 끄르띠에 노트북 30만원대 까르띠에. 문의 1877-4326. 블랙 컬러 레진 소재와 골드 코팅 디테일로 완성했으며 화이트 몽블랑 앤블럼과 Au 585 골드 나이 조화를 이루는 마이스터스틱 르그랑 만년필 1백10만원, 만년필과 함께 사용하는 미스터리 블랙 잉크 60ml 39만5천원 몽블랑. 문의 1877-5408. 1970년대에 첫선을 보인 GG 모티브와 승마 헤리티지를 상징하는 웹(web) 스트라이프가 조화를 이루는 GG 헥사곤 접착식 메모지 29만원대 구찌. 문의 02-3452-1521 포토그래퍼 최민영 에디터 신정임



Simple Luxe

자유로운 가브리엘 샤넬을 닮은 샤넬 화인 주얼리의 아이코닉한 코코 크라쉬 주얼리.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이어링은 코코 크라쉬만의 아이코닉한 디자인 코드를 그대로 담아냈다. 덕분에 사이즈가 작지만 착용했을 때 모든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베이지·옐로·화이트 골드 소재로 이뤄진 C 모티브 안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은은한 반짝임을 부여했다. 싱글 이어링으로 여러 소재와 믹스하거나 레이어링해 착용 가능하며, 더욱 세련되고 매력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너무 화려하지 않으면서 고급스러운 포인트를 주기에 안성맞춤이다. 문의 080-805-9626



ENERGY UP!



데일리 웨어에 포인트를 줄 뻔하지 않은 펀(fun) 아이템 4. (왼쪽 위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귀여운 험스타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은 사이언 소재 수나 후지타(Suna Fujita) 컬렉션의 험스타 백 가격 미정 로에비. 문의 02-3479-1785. 마스터드 소스를 먹음직스럽게 뿐린 헛고 모양의 펜던리서스 철 1백만원대 펜디. 문의 02-544-1925. 레드 양토를 두른 로봇 키 힙으로 가방이나 벨트와 함께 레이어드하면 워스트를 더할 수 있는 블라드 트릭 가격 미정 프라다. 문의 02-442-1830. 나파 가죽을 브랜드 시그너처 기법인 인트레치아토 위빙으로 완성한 코발트 블루 도그 철 가격 미정 보테가 베네타. 문의 02-3438-7682 포토그래퍼 최민영 인턴 에디터 김보민



ART PROJECT

'추수(TZUSOO)'_MMCA X LG OLED 시리즈의 첫 주제

대규모 장소 특성적 프로젝트로 기대를 모으는 국립현대미술관(MMCA)과 LG전자의 첫 협업 작품이 1990년대생 한국 작가 추수(TZUSOO)가 선정되어 눈길을 끈다. 추수(b. 1992)는 LG전자의 후원과 기술 지원을 바탕으로 MMCA 서울관의 개방형 전시 공간인 「서울박스」에서 펼쳐지는 「MMCA X LG OLED 시리즈」의 1호 작품으로 생명·창조·연결된 여성의 욕구와 순환을 주제로 8월 1일 디지털 생명체를 표현한 초대형 영상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전시는 2026년 2월 1일까지 진행된다). MMCA와 LG전자의 중장기 파트너십으로 전개되는 이 시리즈는 매년 1명의 작가를 선발해 서울관의 상징적인 전시 공간인 서울박스에서 현대미술의 비전을 제시하는 정소 특정적 신작을 소개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된다. 사이버 생태계와 현실의 교차점을 탐구하며 영상, 설치, 조각, 회화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업을 선보여온 추수 작가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LG전자의 최신 사이니지를 활용한 영상 작업과 실제로 생명력을 지닌 이끼로 만든 유기적 조각을 병치해 생명, 소멸, 재생의 순환을 상기 시킬 예정이라고. LG전자 MS경험마케팅 오해원 상무는 「MMCA X LG OLED 시리즈」는 기술이 예술적 표현을 어떻게 증폭시키는지 보여주는 혁신적 도약으로 물입형 감각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추수의 창조적 도전 속에서 디자일과 물질 세계의 긴장감 어린 대화가 펼쳐질 서울박스의 변신이 궁금해진다.



Exclusive Interview with 마리사 찌아라와논(Marisa Clearavanont)



5



6

'치유'를 기다리는 대지와 공간, 예술로 보듬어가다

태국 방콕에는 대중에 선보인 지 겨우 1년 남짓 된 '새내기 공간'이지만 지구촌을 누비는 아트 피플 사이에서 입소문으로, SNS 포스팅으로 빈번히 회자되는 독특한 아트 센터가 있다. 역동성을 논하자면 둘째 가라면 서러울 듯한 이 활기 넘치는 메가 시티에서도 그 기운이 남다른 차이나타운에 자리한 방콕 쿤스트할레(Bangkok Kunsthalle). 한눈에 봄도 화마에 휩싸인 흔적이 역력한 커다란 브루탈리즘 건축물을 보금자리로 작년 1월 문을 연 이 공간은 현대미술 전시와 강연, 퍼포먼스, 영화·상영 등 다채로운 활동이 펼쳐지는 전천후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사실 '탈(脫) 화이트 큐브'를 외치는 한 축의 흐름 속에서 재생 건축을 내세운 전시 공간이라면 그다지 새로울 게 없겠지만, 방콕 쿤스트할레의 경우엔 거의 날것 그대로의 생명력을 지닌 채 묘한 오라를 뿜어내면서 비범한 입지를 다져가고 있는 모양새다. 그 배경에는 한국계 태국인 자선사업가이자 문화예술 후원자 마리사 찌아라와논(Marisa Clearavanont)이 2023년 말 설립한 비영리 기관 카오 아이 아트(Khao Yai Art)가 버티고 있기에 세간의 이목을 더 끌었는지도 모르겠다. 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CP그룹 회장의 아내이자 CP그룹 특별 고문 역할을 맡고 있기도 한 그녀가 사업, 교육, 음식, 문화 예술 등의 영역을 아우르며 4개 재단을 이끄는 의미 있는 행보를 보여온 인물이어서다. 그리고 다시 1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난 2월 초 마리사 찌아라와논은 예술가들의 또 다른 성지가 될 법한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태국 동북부의 국립공원 인근에 터를 잡은 '카오 아이 아트 포레스트(Khao Yai Art Forest)'라는 '예술의 숲' 조성 프로젝트다. 방콕과 카오 아이를 오가는 여정 속에서 마리사 찌아라와논을 만났다.

태국의 아트 신을 변모시키는 인생 프로젝트

"저는 결혼한 이래 30년에 걸쳐 마치 커리어 중 하나처럼 '프로 맘'으로 지냈어요. 태국에서 살다가 (4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홍콩으로 건너가 21년간 지냈고 다시 태국에 온 지 8년이 되었죠. 막내까지 대학에 보내고 나서 오롯이 저만의 개인적인 여정에 집중하는 인생의 새로운 캡터를 꾸리려고 합니다." 태국에서 이름 앞에 붙는 존칭을 곁들여 '쿤(Khun) 마리사'로 통하는 마리사 찌아라와논(Marisa Clearavanont) 이사장은 "전격적인 아트 컬렉터로서 지낼 시간은 없었지만 그런 바쁜 삶 속에서도 늘 예술을 사랑해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곁에서 지켜보는 이들은 그녀가 자녀 교육과 내조에 열성이면서 사업 감각도 겸비한, 가녀린 인상이지만 은근한 에너지를 지닌 인물로 평가한다. 언뜻 '배경'만 생각하면 화려한 사교계 활동을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홍콩에서 20년 넘게 지냈어도 자신의 개인사를 별로 드러내지 않는 '로기(low-key)' 유형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인생의 장을 새롭게 열게 한 두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방콕·카오 아이 여정에 참가한 다국적 기자들은 예술 콘텐츠만큼이나 베일에 감춰진 듯한 그녀의 면면을

1 태국 카오 아이 아트 포레스트에 설치된 루이즈 부르주아(Louise Bourgeois, 1911~2010)의 거미 조각 'Maman'(1999). © The Easton Foundation/VAGA at ARS, NY. Photo by Andrea Rossetti.
2 카오 아이의 태국인 버전인 'SilaPaa'는 이트+숲이라는 뜻. 2 비영리 재단인 카오 아이 아트 설립자 마리사 찌아라와논 (Marisa Clearavanont) 이사장이 지난 2월 초 열린 개막식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3 예술과 자연과 함께하는 '치유'를 지향하는 마리사 찌아라와논. Courtesy Khao Yai Art.
4 Francesco Arena, GOD, 2024, 260×220×620cm, Stones, Khao Yai Art Forest, Courtesy Khao Yai Art, Credit of the artist. 5 마리사 이사장이 지명한 '판자(Panxa) 컬렉션' 일부를 인수하면서 소장하게 된 리처드 롱(Richard Long)의 작품 '마드리드 서클'(1988).

궁금해하기도 했다. 마리사 이사장은 태국 국적이지만 한국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1982년 뉴욕으로 떠난, 당시에는 드문 여성 유학생 한국 이름 강수형(강수형)이었다.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지만 한국에서만 지내기엔 웬지 답답하게 느껴졌고, 당연히 외국에 가야 한다고 생각해 유학 준비를 했다"는 그녀는 경영을 공부하며 같은 뉴욕대(NYU)를 다녔던 남편 수파깃(Soopakij) 찌아라와논(현재 CP그룹 회장)을 만나 결혼했다. 한국에서는 집안의 혼사로 화제가 된 적이 있고(2022년 그녀의 장남이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녀와 결혼했다) '길거리 식당에서 탄생한 태국의 유명 미술�� 세프 제파이와 농심의 협업을 도모하는 등 물밑에서 '가교' 역할도 했지만 글로벌 무대에서는 자선이나 후원으로 은은하게 자취를 남겼던 그녀가 이제 자신의 문화 예술 프로젝트를 내걸고 소통에 나선 것이다. "엄마라는 존재는 DNA가 달라진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아낌없이 주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온전히 저 자신으로서 사회에 그 동안 받은 것들을 돌려주고 싶은데, 한국인으로 태어나 이렇게 태국에 머무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카오 아이 아트 포레스트 (Khao Yai Art Forest)

평평한 논밭에 사뿐히 앉은 거미 조각 '마망'
어째서 '숲'이었을까? 누구나 떠올릴 만한 궁금증에 대해 그녀는 팬데믹으로 얻은 '치유로서의 깨달음'이 그 계기였다고 설명했다. 올창한 국립공원이 광활하게 펼쳐진 카오 아이에 CP그룹의 연수원과 가족 별장도 있기에 코로나19 기간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는데, 답답한 가운데 자연이 선사하는 치유로 견딜 수 있었다는 얘기다. "가상의 환경이 팽배한 시대에 우리는 서로 소외된 채 공허한 감정을 느끼며 살고 있잖아요. 그 때문에 흙을 만지고, 밟아야 하고, 자연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카오 아이에서 작가들이 자연에서 받은 영감을 재료로 삼은 작업을 세상과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이런 배경에서, 지난해 1월 먼저 방콕 쿤스트할레(Bangkok Kunsthalle)를 선보이기는 했지만 마리사 찌아라와논은 '예술의 숲' 부지를 사람들에게 4년 전쯤이라고 한다. '아트 숲' 부지는 사실 '자연 있는 땅'이다. 1970년대 큰 홍수가 나면서 살 곳을 잃은 이주민이 정착하면서 별목이 횡행하는 바람에 곳곳에서 오랫동안 방치된 황폐한 모양새가 눈에 띠는, 건조해서 작물을 경작하기도 까다로운 땅이어서다. 하지만 그녀는 "이 창을 발견한 건 축복"이라면서 예술을 매개체로 땅을 보듬으면서 모두가 '치유'받을 수 있는 터전이 되기를 희망했다(그래서 식립에 전격 나서고 있기도 하다). 모성애를 바탕으로 한 강인한 수호천사로서의 상징성을 지닌 루이즈 부르주아(Louise Bourgeois, 1911~2010)의 거미 조각 '마망(Maman)'이 카오 아이 아트 포레스트의 개막에 맞춰 등장한 모습이 자연스러운 그림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연두색 바탕에 황토빛이 깃든 논밭 위에 8개의 다리를 단단히 뻗은 미망의 모습은 또 다른 감동을 준다. 향후 이 숲은 마리사 이사장이 재단 활동을 통해 쌓아온 식문화, 교육, 그리고 자연 친화적 속박까지 아우르는 플랫폼으로 진화할 예정이다.

6 Richard Long, Madrid Circle, 1988, 1160×1160cm, Stones, Khao Yai Art Forest, Courtesy Khao Yai Art.
7 Fujiko Nakaya, Khao Yai Fog Forest, Fog Landscape #48435, 2024, Khao Yai Art Forest, 8 Elmgreen & Dragset, K-BAR, 2024, 395×610×760cm, Mixed Media, Khao Yai Art Forest.

9

10

11

자연과 호흡하며 대지를 지키는 수호천사들

흔히 상상하는 "예쁜 숲은 (아직) 아니다"라는 경고(?)를 미리 들었지만, 실제로 카오 아이 아트 포레스트(Khao Yai Art Forest)는 녹음이 눈부시도록 짙고 청창하게 드리워져 있거나 시원한 그늘이 많은 울창한 숲의 정석은 아니었다. 커다란 원형 터자에 둘러앉아 흙을 직접 만지며 놀이처럼 즐기는 간단한 세션으로 자연과 교감하고는 숲의 이모저모를 볼 수 있는 곳곳에 흩어진 여러 작가의 작품(현재 7개 작업이 있다)과 만나는 '예술 산책'에 나섰다. 아무리 뜨거운 태양을 품고 있는 태국 땅이라지만 엄연히 겨울인데도 땀방울이 송송 맷힐 정도로 '끈기'와 '체력을' 요했다. 그래도 정작 하나하나의 작품을 마주하면 절로 샘솟는 즐거움으로 보상이 되어버린다. 커다란 2개의 돌로 구성된 프란체스코 아레나(Francesco Arena)의 2024년 작품 'GOD', 불교의 전통을 반영해 스투파(사리탑)를 현대식으로 해석한 태국 작가 우비사트(Ubatsat)의 작품 'Pilgrimage to Eternity'(2024),

산 중턱 언덕 위에 올라가면 탁 트인 전망을 선사하는 영국 대가 리처드 롱의 1988년 작품 '마드리드 서클(Madrid Circle)', 최근 서울 APMA에서 개인전을 열어 한국에서도 더 익숙해진 두오 엘름그린&드리그센의 최신작으로, '알코올 사랑'으로 사망한 마르틴 키펜베르거의 그림을 내건 빈티지 바 콘셉트의 익살스런 공간을 연출한 'K-BAR'(2024), 안개 조각으로 유명한 나카야 후지코(Fujiko Nakaya)의 장소 특정적 설치 작품 'Fog Landscape #48435' 등이 있다. 올해 9세의 노익장을 뿐내는 나카야 후지코는 직접 개막식에 참여했는데, 이 작품의 원조가 되는 '안개 작업을 처음 선보인 곳이 1970년 오사카 엑스포였지만 물방울이 맷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다시 전시할 공간을 찾지 못했다는 에피소드도 풀어내 미소를 자아냈다. 혹시라도 이 숲을 찾는다면 '야경'을 챙겨보라고 말해주세요. 미처 감상하지 못했던 영상 작품 'Two Planets(2008)'를 오붓하게 숲에서 감상하는 묘미를 즐긴 뒤 숙소로 향하는데, 그 육중한 거미 조각도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깜깜한 밤하늘에 쏟아질 듯 별들이 빛나는 자태 속 적막이 라나… 침묵은 그 어떤 노래보다 더 음악적이라 고 한 문구는 바로 이런 순간을 두고 써 내려가지 않았을지. 글 고성연(카오 아이 현지 취재)



3

1 태국 카오 아이 아트 포레스트에 설치된 루이즈 부르주아(Louise Bourgeois, 1911~2010)의 거미 조각 'Maman'(1999). © The Easton Foundation/VAGA at ARS, NY. Photo by Andrea Rossetti.
2 카오 아이의 태국인 버전인 'SilaPaa'는 이트+숲이라는 뜻. 2 비영리 재단인 카오 아이 아트 설립자 마리사 찌아라와논 (Marisa Clearavanont) 이사장이 지난 2월 초 열린 개막식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3 예술과 자연과 함께하는 '치유'를 지향하는 마리사 찌아라와논. Courtesy Khao Yai Art.

4 Francesco Arena, GOD, 2024, 260×220×620cm, Stones, Khao Yai Art Forest, Courtesy Khao Yai Art, Credit of the artist. 5 마리사 이사장이 지명한 '판자(Panxa) 컬렉션' 일부를 인수하면서 소장하게 된 리처드 롱(Richard Long)의 작품 '마드리드 서클'(1988).

궁금해하기도 했다. 마리사 이사장은 태국 국적이지만 한국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1982년 뉴욕으로 떠난, 당시에는 드문 여성 유학생 한국 이름 강수형(강수형)이었다.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지만 한국에서만 지내기엔 웬지 답답하게 느껴졌고, 당연히 외국에 가야 한다고 생각해 유학 준비를 했다"는 그녀는 경영을 공부하며 같은 뉴욕대(NYU)를 다녔던 남편 수파깃(Soopakij) 찌아라와논(현재 CP그룹 회장)을 만나 결혼했다. 한국에서는 집안의 혼사로 화제가 된 적이 있고(2022년 그녀의 장남이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녀와 결혼했다) '길거리 식당에서 탄생한 태국의 유명 미술界 세프 제파이와 농심의 협업을 도모하는 등 물밑에서 '가교' 역할도 했지만 글로벌 무대에서는 자선이나 후원으로 은은하게 자취를 남겼던 그녀가 이제 자신의 문화 예술 프로젝트를 내걸고 소통에 나선 것이다. "엄마라는 존재는 DNA가 달라진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아낌없이 주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온전히 저 자신으로서 사회에 그 동안 받은 것들을 돌려주고 싶은데, 한국인으로 태어나 이렇게 태국에 머무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6 Richard Long, Madrid Circle, 1988, 1160×1160cm, Stones, Khao Yai Art Forest, Courtesy Khao Yai Art.
7 Fujiko Nakaya, Khao Yai Fog Forest, Fog Landscape #48435, 2024, Khao Yai Art Forest, 8 Elmgreen & Dragset, K-BAR, 2024, 395×610×760cm, Mixed Media, Khao Yai Art Forest.

9

10

11

자연과 호흡하며 대지를 지키는 수호천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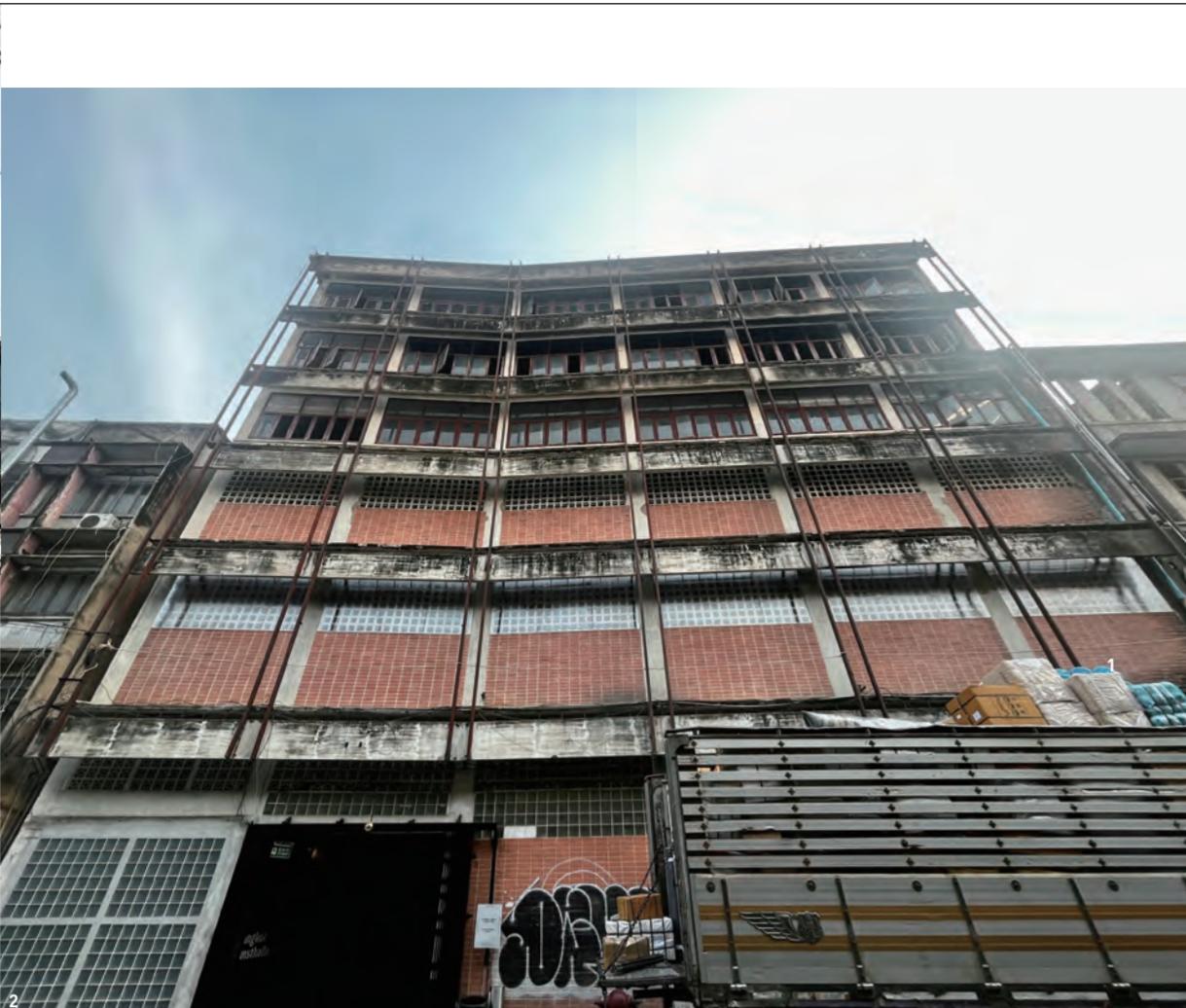
흔히 상상하는 "예쁜 숲은 (아직) 아니다"라는 경고(?)를 미리 들었지만, 실제로 카오 아이 아트 포레스트(Khao Yai Art Forest)는 녹음이 눈부시도록 짙고 청창하게 드리워져 있거나 시원한 그늘이 많은 울창한 숲의 정석은 아니었다. 커다란 원형 터자에 둘러앉아 흙을 직접 만지며 놀이처럼 즐기는 간단한 세션으로 자연과 교감하고는 숲의 이모저모를 볼 수 있는 곳곳에 흩어진 여러 작가의 작품(현재 7개 작업이 있다)과 만나는 '예술 산책'에 나섰다. 아무리 뜨거운 태양을 품고 있는 태국 땅이라지만 엄연히 겨울인데도 땀방울이 송송 맷힐 정도로 '끈기'와 '체력을' 요했다. 그래도 정작 하나하나의 작품을 마주하면 절로 샘솟는 즐거움으로 보상이 되어버린다. 커다란 2개의 돌로 구성된 프란체스코 아레나(Francesco Arena)의 2024년 작품 'GOD', 불교의 전통을 반영해 스투파(사리탑)를 현대식으로 해석한 태국 작가 우비사트(Ubatsat)의 작품 'Pilgrimage to Eternity'(2024),



10



방콕 쿠스트할레 (Bangkok Kunsthalle)



날카롭게 치솟은 고층 건물과 럭셔리 호텔이 즐비한 가운데, 바이크와 '툭툭'으로 불리는 삼륜차의 형형색색 대열이 묘한 감흥을 일으키는 방콕. 어떤 도시든 짧은 스침만으로 하나의 색으로 예단할 수는 없지만 방콕은 '무지갯빛'이라는 표현이 절로 나오는 도시다. 곳곳에 에스러움과 첨단이 공존하고 때로는 섞이면서 세세한 다른 색조로 물들어가는 다채로운 스펙트럼이 묻어난다. 이 '오색찬란한' 모든 조합의 역동성이 단연 빼어난 차이나타운(야알랏)에 자리한 방콕 Kunsthalle는 불과 1년여 만에 다국적 방문객을 이끄는 도심의 랜드마크로 부상했다. 이채로운 외관 덕만 보는 단순한 명소가 아니라 현대미술을 아주 유연하게 담아내는 전천후 그릇 역할을 하면서 말이다.

치참히 불타버린 인쇄소의 찬란한 부활

2001년 일어난 불을 화재로 말미암아 골조만 남기고 거의 불타버린 유서 깊은 방콕 차이나타운의 7층짜리 대형 인쇄소 빌딩(Thai Wattana Panich), 마리사 찌아라와논이 거친 듯 꾸밈없는 브루탈리즘 건축 미학이 엿보이는 이 안타까운 건물을 자신의 꿈과 비전을 담을 방콕의 문화 예술 플랫폼으로 염두에 두고 있을 때 사실 그녀의 주위에서는 그리 호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불에 그을리고 연기가 벤 흔적이 역력한 벽과 기둥만이 남아 '흉물'로 여겨지는 신세였다. 그런데 카오 아이 아트 포레스트를 추진하는 마리사 찌아라와논은 이사장의 창조적 여정에 동참하려고 멀리 스위스에서 방콕으로 이주한 스텔파노 라볼리 판세라(Stephano Rabolli Pansera)는 이 앙상하지만 특유의 오라가 살아 있는 건축물을 보고는 눈빛을 반짝이며 한마디 내뱉었다. "바로 이거네요(That's it!)"라고, 그렇게 2023년 건물을 매입하고 이듬해 초 바로 방콕 Kunsthalle의 문을 열었다.

방콕과 카오 아이 아트 포레스트를 마리사 이사장과 함께 이끄는 판세라 관장(director)은 이탈리아 태생으로 영국 런던의 건축 명문 AA 스쿨을 졸업한 건축가 출신으로 명성 자자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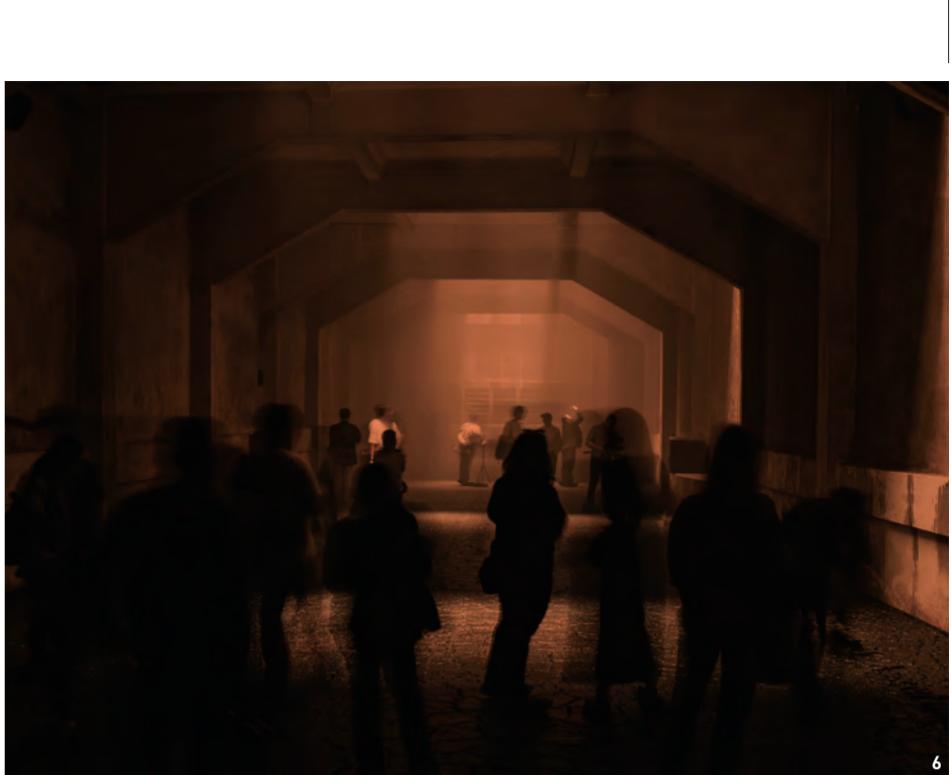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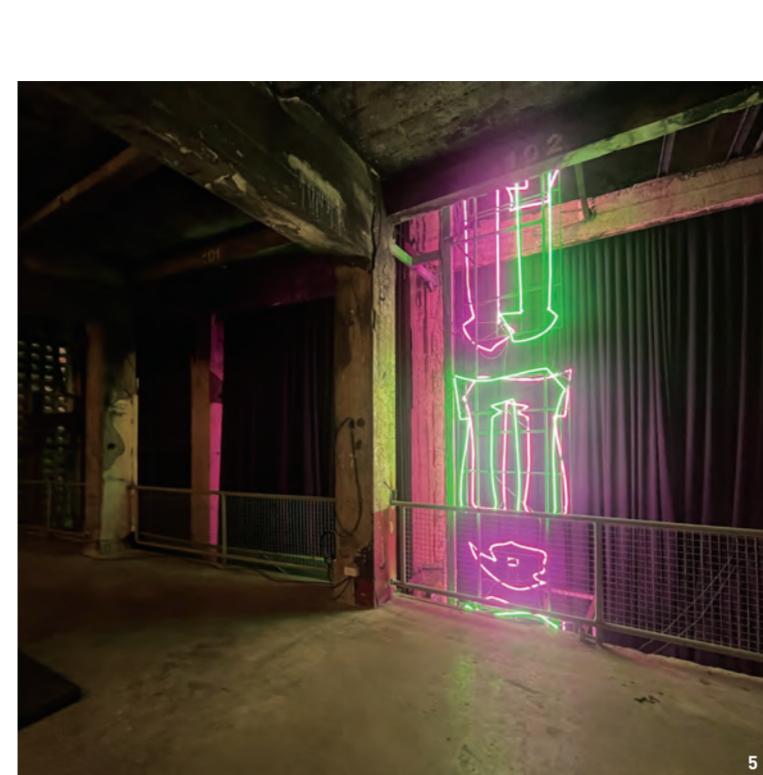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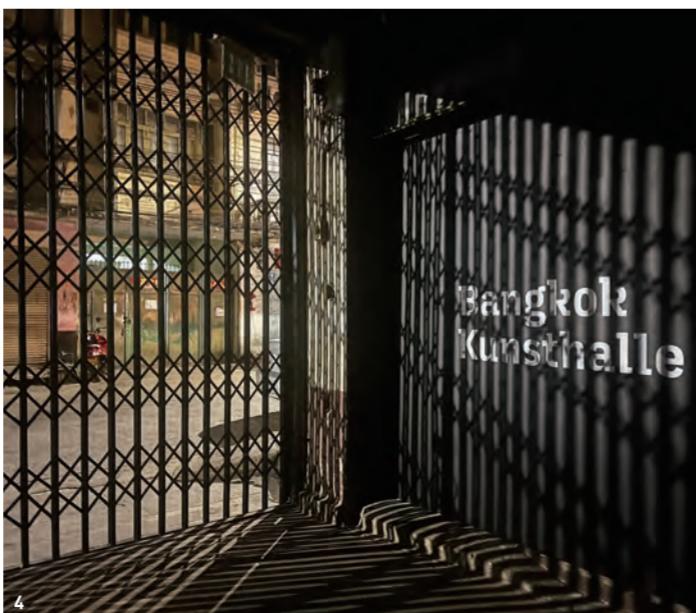
HdM(서울 도산대로에 있는 아트 센터 '송은'을 설계한 세계적인 건축 스튜디오)을 거쳐 특이하게도 갤러리(하우저앤워스) 경력도 쌓은 흥미로운 커리어의 소유자다(심지어 2013년 양골라 국가관으로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에서 황금사자상을 받기도 했다). 스텔파노 관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24년 동안 스며든 연기와 빛자국이 선연한 이 문화유산에 거의 손대지 않은 채 예술가들이 자유자재로 공간을 활용하도록 허용하는 아트 센터를 의도했기에 이토록 빨빠르게 움

1 방콕 Kunsthalle 건물 외관. 도심의 차이나타운에 70년 넘게 터를 지키고 있던 인쇄소 건물을 작가들이 자유롭게 창조적 플랫폼으로 바꿀 수 있는 유동적인 전시 공간으로 털바꿈시킨 비영리 아트 센터. Photo by Andrea Rossetti, Courtesy of Khao Yai Art

2, 4 방콕 Kunsthalle 건물 외관과 입구. **3**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방콕 Kunsthalle의 옥상 위에서 모즈를 쥐한 마리사 찌아라와논과 스텔파노 라볼리 판세라 관장. **5** 미국 뉴욕에서 활동하는 엠마

작일 수 있기도 했다. '백지수표'같이 전권을 주는 일종의 '카르트 블랑시(carte blanche)' 전시를 지향하는 방콕 Kunsthalle의 포문을 연 첫 작가는 영상 작업을 주로 하는 프랑스 출신의 미셸 오데르(Michel Auder)였다.

예술가의 작업, 공간을 치유하고 성장시키다
"건물을 처음 발견했을 때부터 굳이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간직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마리사 찌아라와논의 설명처럼 그들은 깨



진 유리창이나 쓰레기를 차우고 전원, 수도 등 필수적인 시설을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게 넣었을 뿐 공간 자체는 거의 건드린 게 없다. 있는 그대로 예술가들의 창조적인 손길과 호흡으로 건물을 생기를 불어넣는, 자연스럽고 유기적인 '치유' 과정에 다름 아니다. 마리사 이사장이 카오 아이에 자리 잡은 '예술의 숲' 방콕 Kunsthalle가 '치유'라는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다. 사실 필자는 하얀색 입방체의 전시 공간이 주를 이루는 현대미술 생태계에서 '탈 화이트 큐브'를 표방하고자 했던 영리한 전략적 노림수가 아닌가 생각도 했지만, 그 자체로 아름다움을 지닌, 그리고 길가의 행인이나 시장의 상인도 스스럼없이 드나드는 자유로움이 흐르는 공간을 응시하면서 자연스러운 '치유'에 대한 지향점에 일치함을 수긍하게 됐다. "모든 건축물엔 영혼이 깃들어야 한다"고 위대한 건축가 루이스 칸도 말하지 않았던가.

평화를 꾸준히 지향해온 전위예술가 오노 요코(Yoko Ono)가 1960년대 런던에서 깨진 도자기들을 관람객들과 함께 수선하는 참여형 전시로 선보였던 '멘드 피스(Mend Piece)'가 이곳에서 얼마 전 재현된 사례도 이 같은 관점에서 볼 수 있다. 또 현재 이 공간을 수놓고 있는 중

맥코믹 굿하트(Emma McCormick Goodhart)의 카다란 네온 작품 'glai glai', 회마를 입은 과거에서 솟아나는 미래적인 감성에 대조를 이룬다. **6 태국의 절은 작가 코라크리트 어운나논차이(Korakrit Arunanondchai)〈nostalgia for unity〉의 자난해 전시 설치 모습. 한국에서도 아트선재센터, 국제갤러리 등에서 개인전을 선보인 작가다.**
7 미국 작가 리차드 노나스(Richard Nonas)〈Like Nouns Slipping Into Verbs〉 전시 풍경. 2025년 1월 10일~3월 30일.
8 20세기의 저명한 시인이자 미술가였던 중국계 태국 작가 당창(Tang Chang) 전시 〈Calligraphic Abstraction〉 설치 모습. 마리사 이사장의 아들 마크 피아리와논이 큐레이터로 참여한 전시기도 하다. 오는 7월 13일까지. **9** 지난해 여름 개막해 큰 호평을 받았던 오노 요코(Yoko Ono, b. 1933)〈Mend Piece〉 전시 모습.

10 스텔파노 라볼리 판세라

관장의 모습. 방콕의 현대미술에 관심이 있는 만 차이나타운의 묘한 아트 센터에 있는 스텔파노를 만나는 조언이 우스갯소리처럼 나을 정도로, 방콕 Kunsthalle는 탄생한 지 약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바상한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스테파노 관장은 이 독특한 전시 공간의 정체성을 '길들이기(domestication)'를 통한 치유 개념으로도 설명한다. '복원(restoration)'은 일방적이지만 길들이기에는 상호작용이 따르거나, 여리 단성이 스친다.

글 고성연(방콕 현지 취재)

국계 태국 작가 당창(Tang Chang, 1934~1990)이기도 하지만, 방콕 Kunsthalle는 이러한 치유의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창조의 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치유, '힐링'이라는 단어를 참으로 쉽게 던지지만, 인류의 문화유산을 끌어안고 보듬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 내면의 회복이란 무엇일까. 로마 콜로세움을 떠올리게 하는 운치를 지닌 루프톱에 올라 차이나타운의 역동적인 풍경을 눈에 담고 있노라면, 여러 단성이 스친다.

(왼쪽부터) 18K 로즈 골드 소재에
커닐리언과 오닉스로 비상하기
위해 날개를 편 무당벌레를
생동감 있게 표현한 럭키 스프링
브레이슬릿, 커닐리언과 오닉스로
완성한 무당벌레에 화이트
마더오브펄로 완성한 매화꽃을
추가해 볼륨감을 더한 럭키 스프링
브레이슬릿 모두 가격 미정.

Symphony of Spring

반클리프 아펠 럭키 스프링 컬렉션은 메종의 소중한 두 가지 테마인 자연과 행운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서정적인 세계와 삶을 향한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한다. 무당벌레와 플라워 모티브에는 겨울
내내 잠들었던 자연을 깨워 새로운 봄을 맞이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PHOTOGRAPHED BY PARK JAEYOUNG



(위부터) 18K 로즈 골드 소재에
2개의 화이트 마더오브펄로 이뤄진
매화꽃에 다가가는 커닐리언과
오닉스 소재의 무당벌레 모티브
럭키 스프링 비트원 더 러기 ing,
화이트 마더오브펄 소재의 매화꽃
한 송이로 이뤄진 럭키 스프링
브레이슬릿 모두 가격 미정.



화이트 머더오브펄로 완성한 꽃
6송이와 18K 로즈 골드 소재의
나뭇잎 4개 사이를 자유로이
비행하는 듯한 커널리언과
오닉스로 이뤄진 무당벌레 모티브
3개를 매치한 럭키 스프링
롱 네크리스 가격 미정



(위부터) 화이트 머더오브펄로 이뤄진
매화꽃 모티브로 완성한 럭키 스프링
이어링, 18K 로즈 골드 소재에
3개의 화이트 머더오브펄 매화꽃과
커널리언, 오닉스로 완성한 무당벌레
모티브로 완성한 럭키 스프링 클립
모두 가격 미정 반클리프 아펠
문의 1877-4128 에디터 성정민

Featherlight Bloom

스페인 고급 제작 노하우와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탄생한 로에베 퍼즐 백이 2025 S/S 컬렉션에서 새롭게 태어났다.
혁신적인 구조에 정교한 기술과 유연한 실루엣이 더해져 더 우아하고 고급스러워진 페더라이트 퍼즐 백이 그 주인공이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Towards Innovation

1755년 창립된 이래 2백70년간 워치메이킹 분야에서 기술적 혁신과 세계 최초의 업적으로 수많은 이정표를 세워온 바쉐론 콘스탄틴. 이제까지 매종에서 출시한 다양한 컴플리케이션과 이를 조합해 탄생시킨 워치를 통해 바쉐론 콘스탄틴만의 탁월한 워치메이킹 탐구 정신을 돌아본다.

스페셜 디스플레이 및 그랜드

컴플리케이션을 다루는 뛰어난 기술력

바쉐론 콘스탄틴의 워치메이킹은 천문 관측을

통해 시작된 전통적인 시간 측정 방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 매종 아카이브에 등록된 최초의 컴플리케이션 시계는 1790년에 탄생했으며, 그 후 바쉐론 콘스탄틴의 워치메이킹 기술적 스펙트럼의 전체를 아우르는 수많은 제품이 등장했다. 특히 매종은 기어트레인을 통해 다이얼에 표시되는 여러 기능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스페셜 디스플레이를 제작하며 차별화된 행보를 보여왔다. 1930년 더블 레트로그레이드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브라 앤 레 흐(Bras en l'Air)' 포켓 워치가 그리한 독창성의 예다. 1900년대부터는 2축 아밀리아 투르비옹과 같은 형태로 발전한 투르비옹부터 미닛 리피터, 그랑 소네리 및 프티 소네리 등 소리로 시간을 알리는 워치까지, 탁월한 수준의 바쉐론 콘스탄틴만의 기술력을 선보여왔다. 그러나 매종은 '캐비노티에(Les Cabinotiers) 아밀리아 투르비옹 퍼페추얼 캘린더-플라네타리아' 워치로 천문학 정보를 표시하는 기능과 관련해 하니의 기준점을 세웠다. 이후 포켓 워치 형태의 시계를 통해 그랜드 컴플리케이션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다.

1918년 유명한 자동차 제조업자 제임스 워드 팩커드(James Ward Packard)를 위해 제작한 포켓 워치는 크로노그래프, 그랑 소네리 및 프티 소네리, 쿼터 리피터를 포함한 정교한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1929년에는 이집트 국왕 푸아드(King Fouad)를 위해 12개의 컴플리케이션을 갖춘 투르 드 릴(Tour de l'Ile) 양면 손목시계를 출시한다. 이후 약 65일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트레이디셔널(Traditionnelle) 트윈 비트 퍼페추얼 캘린더의 이중 진동수 시스템, 상용시, 태양시, 항성시를 중심으로 23개의 컴플리케이션을 적용한 '캐비노티에 셀레스티아 아스트로노미컬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3600', 더 나아가 무려 57개의 기능을 갖춘 '캐비노티에 레페린스 5726'과 작년에는 최초의 차이니스 퍼페추얼 캘린더 바쉐론 콘스탄틴은 기술력과 진귀한 미학이

를 갖추고, 63개의 기능을 적용한 '캐비노티에-더 버클리 그랜드 컴플리케이션'을 출시해 또 한번의 진화를 보여주었다.

뛰어난 기술력에 더해진 진귀한 미학

바쉐론 콘스탄틴의 워치메이킹 기술력은 컴플리케이션에서뿐 아니라 장인 정신에서 비롯된 디테일한 미학적 표현 능력에서도 전개된다. 특히 매종은 기어트레인을 통해 다이얼에 표시되는 여러 기능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스페셜 디스플레이를 제작하며 차별화된 행보를 보여왔다. 1930년 더블 레트로그레이드 디스플레이

이를 장착한 '브라 앤 레 흐(Bras en l'Air)' 포켓 워치가 그리한 독창성의 예다. 1900년대부터는 2축 아밀리아 투르비옹과 같은 형태로 발전한 투르비옹부터 미닛 리피터, 그랑 소네리 및 프티 소네리 등 소리로 시간을 알리는 워치까지, 탁월한 수준의 바쉐론 콘스탄틴만의 기술력을 선보여왔다. 그러나 매종은 '캐비노티에(Les Cabinotiers) 아밀리아 투르비옹 퍼페추얼 캘린더-플라네타리아' 워치로 천문학 정보를 표시하는 기능과 관련해 하니의 기준점을 세웠다. 이후 포켓 워치 형태의 시계를 통해 그랜드 컴플리케이션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다.

1918년 유명한 자동차 제조업자 제임스 워드 팩

커드(James Ward Packard)를 위해 제작한 포켓 워치는 크로노그래프, 그랑 소네리 및 프티 소

네리, 쿼터 리피터를 포함한 정교한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1929년에는 이집트 국왕 푸아드(King Fouad)를 위해 12개의 컴플리케이션을 갖춘 투르 드 릴(Tour de l'Ile) 양면 손목시계를 출시한다. 이후 약 65일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트레이디셔널(Traditionnelle) 트윈 비트 퍼페추얼 캘린더의 이중 진동수 시스템, 상용시, 태양시, 항성시를 중심으로 23개의 컴플리케이션을 적

용한 '캐비노티에 셀레스티아 아스트로노미컬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3600', 더 나아가 무려 57개의 기능을 갖춘 '캐비노티에 레페린스 5726'

과 작년에는 최초의 차이니스 퍼페추얼 캘린더

바쉐론 콘스탄틴은 기술력과 진귀한 미학이



돋보이는 시계를 제작하기 위해 오픈워크 모델에 탁월한 수준의 올트라-신 칼리버를 구현해냈다. 그리고 이 올트라-신 디자인에서 여러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1950년대 초에는 두께 2.94mm의 칼리버 1001을 공개했으며, 1955년에 매종 창립 200주년을 기념해 전 세계에서 가장 얇은 무브먼트로 출시된 두께 1.64mm의 칼리버 1003을 출시했다. 이러한 정교한 컴플리케이션과 그랜드 컴플리케이션뿐 아니라 미학적 접근까지 매종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도전 정신을 보여준다. 이로써 바쉐론 콘스탄틴은 언제나 불가능에 기꺼이 도전하는 유서 깊은 매뉴팩처로서의 가치를 공고히 했다. 문의 1877-4306 애디션 성장민



루이 비통 하이 주얼리 컬렉션 '어웨이큰 핸즈, 어웨이큰 마인즈(Awakened Hands, Awakened Minds)'의 두 번째 챕터가 공개됐다. 작년 여름에 이어 루이 비통의 주얼리와 워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프란체스카 앤 피시어트로프가 디자인했으며, 혁신을 주제로 한 이번 챕터는 큰 변혁을 겪은 19세기 프랑스에서 영감받았다. 그 시대에서 겪을 수 있는 산업적 진보, 폭넓은 디자인을 가능케 한 자유로운 장인 정신, 급진적 공예 기술의 발전 등을 독창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했다. 당시 프랑스를 성장시킨 주요 요소와 디자이너의 무한한 상상력이 만나 예술 작품 못지않은 주얼리를 탄생시켰다. 챕터 II는 총 7개의 테마와 50피스의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챕터 I과 가장 다른 점은 '피나미널(Phenomenal)'에 남성 캡슐 컬렉션을 새로 추가했다는 것. 피나미널은 프랑스 도자기 예술에서 영감받은 격자무늬, 화려한 디테일, 정교한 로프 모티브가 특징이다.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낚시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로프 모티브가 디아일을 부드럽게 감싸고 상단의 4.55캐럿 차보라이트가 시선을 압도한다. 매종의 무한한 상상력과 정교함을 엿볼 수 있는 순간이다.

1 기하학적 격자무늬를 세심하게 표현한 '엘레강스 헤드 밴드'

2 좌우 각각 1.23캐럿,

1.28캐럿의 모점비크산 러비를

세팅한 '스플렌더' 이어링

3 건축물을 설계하듯 정교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주얼리를

완성했다. 4 인그레이빙 기법,

4.55캐럿의 차보라이트, 로프

디테일 등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피나미널' 나침반

5 매종의 스톤 전문가가

엄선한 플룸비아산 7.44캐럿

에메랄드가 매혹적인 '피나미널'

네크리스, 6 파리 애틀리에에서

영감을 구조적인 디자인의

'빅투아르' 하이 칼라 네크리스,

7 좌우 각각 5.05캐럿, 5.07

캐럿 앤솔리티드 데일리

'빅투아르' 펜던트 드롭 이어링

'어웨이큰 핸즈, 어웨이큰 마인즈' 컬렉션의 두 번째 챕터는 19세기 아틀리에 장인들의 기술과 문화, 건축물 등을 조화시키며 예술의 경지에 다다른 시간이었다. 일곱 가지 테마로 알아본 루이 비통 하이 주얼리 컬렉션의 새로운 세계.

'어웨이큰 핸즈, 어웨이큰 마인즈'는 19세기 프랑스 궁전의 화려한 건축물과 장식물을 떠올리게 한다. 이를 가장 잘 표현한 '스플렌더(Splendour)' 네크리스는 그 시대의 왕실 가구에 새긴 플라워 모티브에서 영감받아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모노그램 플라워 패턴에 고스란히 적용했다. 앤솔리티드 앤솔리티드 모노그램 패턴에 정식한 8.69캐럿의 모점비크산 러비 꽂 모티브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으며, 네크리스를 따라 반짝이는 러비와 다이아몬드 체인이 플라워 패턴과 완벽한 균형을 이룬다. 네크리스와 완벽하게 매치되는 링과 이어링은 함께했을 때 경이롭기까지 하다.

화려한 유색 보석을 세팅한 스플렌더와 달리 '엘레강스(Elegance)'의 헤드 밴드는 매종의 그래픽 코드를 여성스러운 디테일로 재해석했다. 이미를 가로지르고 해어인을 유연하게 감싸는 격자무늬 밴드는 오로지 화이트 골드와 LV 모노그램 스타 컷 다이아몬드로만 완성해 주얼리의 순수함에 매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파리를 상징하는 애틀리에를 형상화한 '빅투아르(Victoire)' 네크리스는 챕터 II의 대미를 장식한다. 제작에만 무려 3천19번 23시간이 소요된 이 작품은 애틀리에의 건축적 정교함과 예술적 디테일을 하이 칼라 네크리스로 표현했다. 먼저 네크리스 중앙에 위치한 매종의 상징 V 위로 10.43캐럿과 3.08캐럿 LV 모노그램 스타 컷 다이아몬드를 수놓았다.

여기에는 네크리스를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33개의 앤솔리티드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보석과 주얼리, 그리고 예술의 아름다움을 넘어서, 건축물에서 느껴지는 웅장함까지 감돈다. 초현실적인 미학을 암시하고 대담함과 정교함, 그리고 구조적 유연성을 넘나드는 빅투아르는 루이 비통이 19세기에 보내는 예찬 그 이상이다. 이외에 시대의 발전과 이동성에서 영감받은 '그라비테(Gravity)', 구조적 링크의 강렬한 배설이 인상적인 '다이나미즘(Dynamisme)', 마지막으로 산업화 시대의 힘을 담았으며, 화살 모양의 베개트 컷 다이아몬드가 표인트인 '비전(Vision)' 등이 있다.

'어웨이큰 핸즈, 어웨이큰 마인즈' 컬렉션은 19세기 아틀리에 장인들의 기술력과 주얼리의 본질을 알리는 데 공헌하며, 더 나아가 보석과 주얼리의 개념을 예술로 확장해 신선한 자극을 준다. 문의 02-3432-1854

에디터 김하연



6

(위부터 차례대로) 물고기가 물속을 유영하듯 정교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물고기의 관절을 4개의 동전 모양으로 세밀하게 담은 순금 네크리스. 중국에서 행운을 뜻하는 붉은 끈과 끝없는 축복을 상징하는 물고기가 만나 성공과 번영을 상징하는 순금 브레이슬릿. 브랜드 고유의 황금 세공 기법을 적용해 물고기를 입체감 있게 표현한 순금 이어링. 우아한 진주와 황금의 조화가 돋보이는 순금 네크리스 모두 가격 미정 주대복. 에디터 김하얀



Shine Of Gold

중국 전통에 따르면 물고기 문양은 풍요와 축복을 상징한다. 주대복은 95년간 쌓아 올린 전통적인 황금 공예의 기술력과 장인 정신으로 HUÁ 컬렉션을 완성했다. 친란한 금빛, 자연의 승고함,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상징적 의미.

PHOTOGRAPHED BY PARK JAE YOUNG

02-3442-4700



1 클래식 카의 미학에서 영감받았으며 네온한 사이즈로 실용성을 겸비한 더 랄프 토트백 5백50만원대
2, 3 포멀부터 캐주얼 룩까지 두루 매치하기 좋은 더 랄프 스몰 숄더백 3백60만원대
4 부드러운 송아지가죽을 사용한 더 랄프 버킷 백 3백70만원대

향유하며 핵심적인 디테일을 더하는 브랜드 특유의 디자인도 엿볼 수 있다. 군더더기 없는 토트백 중앙에 자리한 벨트 디테일이 바로 그것. 디자이너의 취향이자 브랜드의 시그니처를 반영한 것으로 랄프로렌 컬렉션의 헤리티지가 여실히 느껴진다. 토트백과 상반된 매력의 스몰 숄더백은 이번 시즌 토트백과 함께 핵심 디자인으로 꼽히며 콤팩트한 사이즈에 간결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양 사이드에 더한 시그니처 벨트 디테일, 가방 상단부를 가로지르는 견고한 스티치, 부드러운 소재가 이루는 유동적인 실루엣 등 타임리스 아이템이라 칭해도 손색없는 모던한 디테일이 가득하다. 손에 가볍게 쥐어도 좋고 어깨에 툭 걸쳐도 좋다. 토트백부터 숄더백, 버킷 백에 이르기까지 '더 랄프'는 클래식이란 수식어가 아깝지 않다. 소재와 디자인, 컬러 등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빛을 발하며, 어떤 트렌드에 맞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스타일을 구축할 수 있다. 문의 02-3467-6560 에디터 김하얀

Timeless Classic

랄프 로렌이 그가 사랑하는 '차(car)'에서 영감받은 새로운 백을 선보인다. 디자이너의 유연한 취향과 브랜드의 헤리티지가 담긴 '더 랄프'를 탐해볼 시간.

패션을 넘어 인테리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디자이너 랄프 로렌. 그의 가장 두드러진 취미는 바로 클래식 카 수집이다. 실제로 그는 전시회를 통해 오랜 세월에 걸쳐 수집한 자동차를 대중에게 선보였을 만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수집가 중 한 명이다. 그의 남다른 차 사랑은 작년 홈 컬렉션에 이어 이번 해 새로 출시한 백 '더 랄프'에서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저는 시대를 초월한 자동차의 디자인적 미학에서 끊임없는 영감을 받아왔습니다. 지금도 세심하고 정교하게 설계한 자동차의 모든 부분에서 고유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친미하죠. '더 랄프'는 잘 만든 자동차의 기능



Get

The List

새로운 봄, 프레시 쇼핑 리스트.
PHOTOGRAPHED BY YI JOO HYUK



LOEWE
부드러운 카프 레더로
제작했으며, 기하학적 구조가
돋보이는 아이코닉한 퍼즐
엣지 스몰 백 4백60만원
로에베. 문의 02-518-6416



DIOR TIMEPIECE
지름 25mm 스틸 케이스에 총
0.03캐럿의 13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크라운과
메탈릭 까나주 인그레이빙이
돋보이는 핑크 마더오브펄,
세틴 & 까나주 패턴의 스틸
브레이슬릿을 매치해 사랑스럽고
여성스럽게 완성한 라 디 마이
디올 타임피스 가격 미정 디올
타임피스. 문의 02-3280-0104



CHANEL WATCHES
팔각형의 항수병에서 착안한
케이스와 사넬 백 체인을
모티브로 한 브레이슬릿 등 사넬
하우스에서 영감받은 요소로
가득한 프리미엄 워치.
26.1mm의 18K 엘로 골드
케이스에 블랙 래커 다이얼로
완성했다. 가격 미정 사넬 워치.
문의 080-805-9628



LOUIS VUITTON
루이 비통 X 무라카미 컬렉션
백으로 일본 예술가 무라카미
다카시를 대표하는 팝한 색상을
경쾌하고 생기 있는 모노그램
모티브로 표현했다. 천연
카우하이드 가죽 소재의 LV X TM
스피디 반둘리에 25 가격 미정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HUBLOT
위블로만의 비비드한 블루
세라믹으로 암상한 빈티지 유니코
블루 매직. 지름 42mm 케이스에
오픈워크 다이얼로 스포티함을
강조했으며 HUB1280 셀프 워인딩
무브먼트로 작동한다. 3천만원대
위블로. 문의 02-540-1356



LORO PIANA
2025 S/S 컬렉션의 엑스트라
드로스트링 백백으로 드로스트링
클로저를 더해 소시풀을 쉽게
꺼낼 수 있으며, 로로피아나만의
최고급 가죽으로 제작해
자연스럽고 고급스러운 실루엣에
세련된 터치를 더한다. 가격 미정
로로피아나. 문의 02-6200-7796



VACHERON CONSTANTIN
독특한 세파야 브라운 톤
다이얼 컬러가 색다른 감성을
부여하며 고급스러운 무드를
자아내는 피프티식스 컵플리트
캘린더. 지름 40mm 케이스에
18K 5N 핑크 골드로 완성했으며
6시 방향에 문페이즈를
배치했다. 3천7백80만원대
바쉐론 콘스탄틴.
문의 1877-4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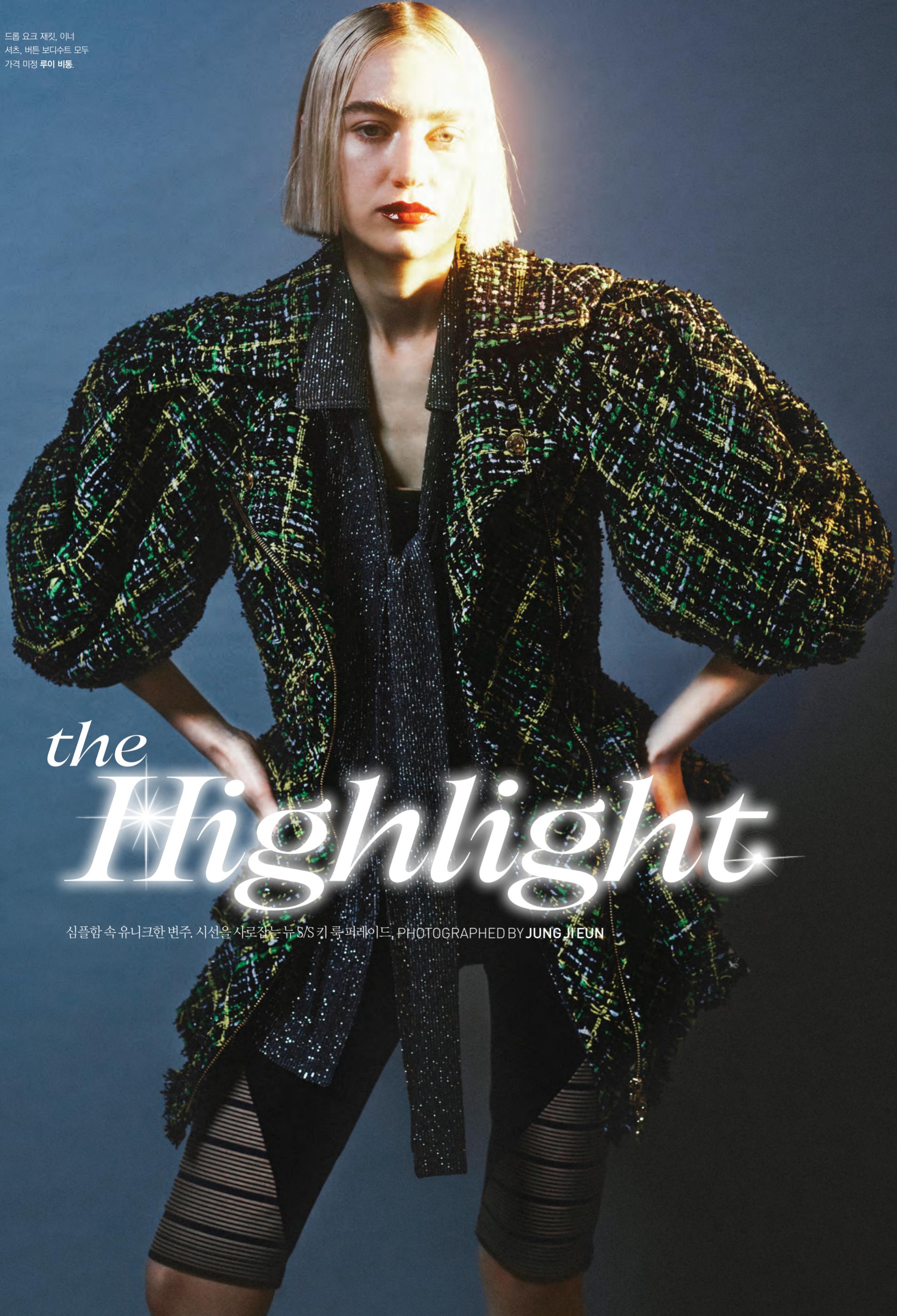
VALENTINO GARAVANI
알레산드로 미켈레의 두 번째
컬렉션에 등장한 미노디에르
스타일 백. 플라티늄 소재 체인
스트랩을 더해 크로스 보디로,
오브제로도 연출 가능한 사
드 라 베愁 7백30만원, 빈티지
필라동 소재에 크리스탈 실버와
레진으로 완성한 하트 모양의
쿠에르 하이퍼볼 초기 가격
미정 모두 발렌티노 가리바니.
문의 02-2015-4655
에디터 성정민

드롭 요크 재킷, 이너
셔츠, 버튼 보디스트 모두
가격 미정 루이 비통.

실크 소재의 임브로이더드
톱, 스커트, 헛, 플랫 월 모두
가격 미정 로로피아나.

the ***Highlight***

심플함 속 유니크한 변주, 시선을 사로잡는 뉴 S/S 커리어레이드, PHOTOGRAPHED BY JUNG JIEUN



카프 스키니 소재의 재킷
2천97만원, 카프 스키니 소재의
팬츠 1천4백33만원, 우드 및
카프 스키니 소재의 클레이 샌들
1백94만원 모두 에르메스.



세브론 패턴의 퍼 프린트 재킷, 올 소재의
네이비 스웨터, 시스케이프 프린트의
스커트 모두 가격 미정 프라다.



실크 폴리아미드 소재 재킷,
드레스 모두 가격 미정 샤넬.

어깨 디테일이 돋보이는 레드 컬러 드레스 80만원, 블랙 컬러의 리플 스커트 3백90만원, 플로럴 타이츠 33만원, 프린지 장식의 벨트 가격 미정 모두 발렌티노. 퓨리풀리아주 술링백 1백48만원 발렌티노 가라바나.



스트레이트 끝 반소매 재킷
2백77만원 모크넥 반소매 티셔츠
2백4만원 니팅스 레깅스 1백16만원,
니트 미니스커트 1백30만원, 인프라디토
디테일의 샌들 92만원 모두 토즈.

헤어 박희승
메이크업 조혜민
모델 Valeria Kravets
스타일리스트 채한석

로로피아나 02-6200-7799
루이 비통 02-3432-1854
페라가모 02-3430-7854
프라다 02-3442-1830
사별 080-805-9628
토즈 02-3438-6008
발렌티노, 발렌티노 가라바니
02-2015-4655
에르메스 02-542-6622



컷아웃 네크라인의 미니드레스, 간치니
브레이슬릿 모두 가격 미정 페라가모.



Heavenly Night

밤사이 다시 태어나는 피부를 위한 나이트 루틴.

PHOTOGRAPHED BY PARK JAEYONG

(왼쪽 아래부터 차례대로) 디올 프레스티지 르 밤 드 미뉘
디올 프레스티지 시그니처 성분인 로사펩타이드에 피부에
활력을 불어넣는 미네카식 애시드를 더해 탄생시킨 복합체
뉴 로사펩타이드 드 미뉘를 풍부하게 함유한 프리미엄
나이트 크림 50ml 79만원대. 문의 080-342-9500
라프레리 플래티늄 레어 오프-레쥬메네이션 크림
독자적인 셀루라 콤플렉스와 순수하고 진귀한
플래티늄을 가득 함유한 고양양 크림으로 밤사이
피붓결을 개선하며, 생기 넘치고 탄력 있는 피부를
완성하는 것은 물론 적성화 피부에 고급스러운 광채를
선사한다. 50ml 2백37만2천원. 문의 02-6390-1148

뽀아레 암솔리트 크림 피부를 부드럽고 생기 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벌노랑이 체세포배추출물과
탄력 개선을 돋는 장미꽃 추출물, 고춧잎 추출물
등을 함유해 강력한 항노화 효과, 풍부한 영양감과
수분감으로 피부를 더욱 건강하고 생기 있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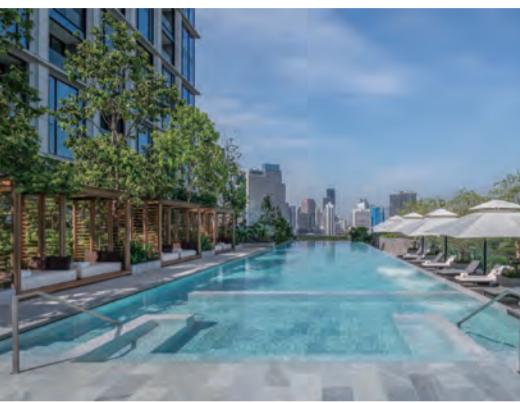
기꿔준다. 50ml 55만원대. 문의 02-310-5025

시슬리 수프리미아 엣 나이트 더 수프림 앤터-에이징
아이 크림 수프리미아 컬레션의 핵심 재생 콤플렉스로
밤사이 약한 눈가 피부에 일어나는 푸석함과 부기,
색소침착, 주름 등 노화 징후를 360도 케어한다.
특히 눈가 부종과 저점으로 생기는 아이 백 등에
효과적이다. 15ml 46만원. 문의 080-549-0216

에이피 뷰티 프라임 라이트 리페리너티 나이트 엘릭시어
크림의 4배 이상 유효 성분을 응축시켜 밤부터 아침까지
마르지 않고 피부를 보호한다. 세라마이드 성분보다
8.7배 높은 장벽 강화 기능을 갖추고 펩타이드 성분보다

1.6배 높은 탄력 증진 효과를 지닌 플리보노이드
228K™를 함유해 피부를 드라마틱하게 회복시킨다.
6.5ml×8ea 75만원. 문의 080-023-54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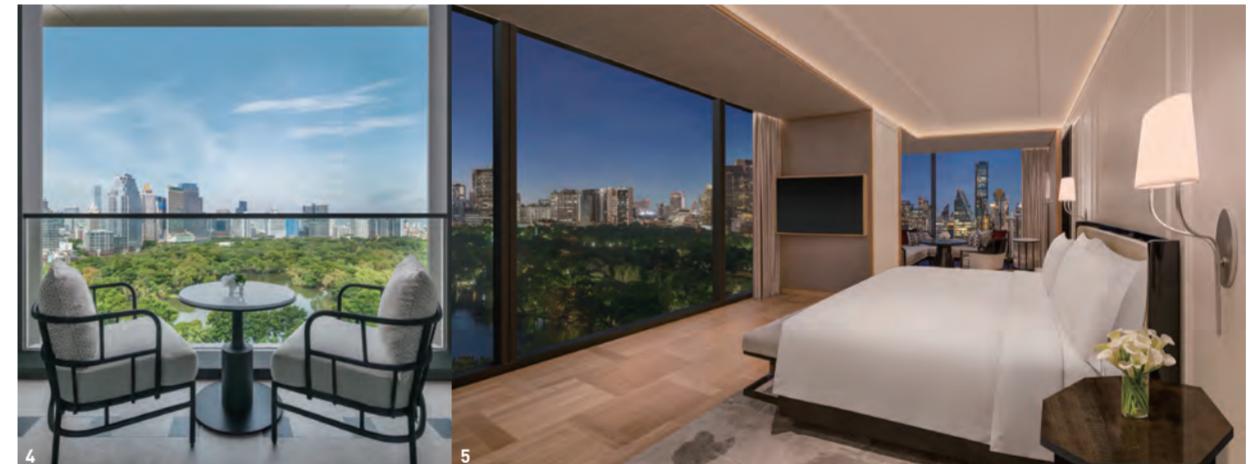
샤넬 수블리미제 헥스트레 드 뉴 부족한 에너지를
채워주는 프리미엄 고농축 나이트 트리트먼트로 시그니처
그린 다이아몬드와 바닐라 플래니풀리아 성분이 피부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세포 재생에 도움을 주어 외부
환경과 노화로 치친 피부에 활력을 재우고 리파이어 효과를
선사한다. 30ml 92만8천원. 문의 080-805-9638
시세이도 푸처 솔루션 LX 토탈 리제나레이팅 크림
밤에 사용하기 좋은 크림으로 전설의 식물 언매이
허브와 풍 제나비터 콤플렉스™가 만나 피부의
힘과 탄력을 강화하며, 부드럽고 풍부한 텍스처로
밤새 녹아들 듯 스며들어 최적의 보습과 광채를
부여한다. 50ml 42만원대. 문의 080-564-7700
에디터 성정민



더 리츠칼튼 방콕(The Ritz-Carlton, Bangkok)

The One & Only!

태국의 심장인 수도 방콕을 둘러싼 수많은 수식어 가운데 '가능성의 도시'라는 표현이 있다.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제일 많이 찾는 메트로폴리스 순위권에 빠지면 섭섭할 만큼 인기 만점 도시로 다양한 인프라와 콘텐츠가 자리 잡았지만, 여전히 잠재력이 넘쳐흐르기에 '가능성'이란 단어가 잘 어울린다. 그 배경에는 이 도시의 풍경을 더 역동적으로 만들어가는 역대급 프로젝트 '원 방콕(One Bangkok)'이 있다. 광활한 녹음과 더불어 잔잔한 호수까지 품은 룸피니 공원 곁에 자리한 쇼핑센터, 레지던스, 오피스 빌딩, 호텔, 엔터테인먼트 등을 품은 매머드급 라이프스타일 허브의 이름이다. 지난해 12월 초 문을 연 더 리츠칼튼 방콕(The Ritz-Carlton, Bangkok)은 바로 원 방콕의 핵심을 이루는 럭셔리 호텔이다.



리츠칼튼 방콕의 정체성을 돋보이게 한다.
놀랍도록 다채롭고 빼어난 맛의 스펙트럼을 자닌 태국의 오리지는 물론 각국 미식의 조화가 스며든 '다문화적' 식도락(F&B) 풍경은 호텔의 매력을 네各方面에 증폭시킨다. 이미 입소문이 난 풍성한 아침 식사부터 올 데이 다이닝을 제공하는 릴리즈(Lily's), 늦은 밤(자정)까지도 스낵과 각종 음료를 즐길 수 있는 칼레오(Caleo), 그리고 동서양의 재료와 기법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새로운 조화를 이루어내면서도 '맛'의 정수를 간직한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뒤틱(Duet)이 있다. 미슐랭 스타 세프 디비드 투탱(David Tournat)의 독창성이 부각되는 뉴 엣의 미식 코스는 가문비나무 잎(epicéa), 버베나(verbena), 미소, XO 소스 등 기초가 되는 식재료를 일일이 그림엽서로 보여주며 와인 페어링을 하는 섬세한 즐거움을 선사해, 대화 소재를 자연스레 끌어내기도 한다. '백문(百聞)이 불여일식(不如一食)'이다.

글 고성연(방콕 현지 취재)



잠시 머무르든 장기간 체류하는 호텔은 '여행길의 집'이 된다. 아무리 행복한 여행이어도 곧잘 지치게 되는 심신을 보듬는 기능에 있어서 믿음이 가는 '브랜드'의 중요성이 부각되곤 한다. 본보이(Bonvoy)라는 멤버십으로 통하는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계열의 '리츠칼튼(The Ritz-Carlton)'은 격조 높은 안정감을 선사하는 럭셔리 호텔의 이미지를 자녔다. 그래서 세계 어느 도시를 가든 신뢰감이 드는 럭셔리의 정석을 즐길 수 있는데, 그때에서도 정돈된 방식으로 반영된 지역색과 어우러진 각 지점만의 매력을 품고 있다. 투숙객을 맞아들인 지 한 시즌밖에 되지 않은 더 리츠칼튼 방콕(The Ritz-Carlton Bangkok)은 특유의 풍경과 세련미에 더해 감탄할 만한 입지와 특색을 자닌 덕에 도심의 새 랜드마크로 부상하고 있다. 미화 35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투입된 라이프스타일 허브인 원 방콕(One Bangkok)에 속해 있는데, 덕분에 도시의 생명력을 떠받치는 룸피니 공원의 절은 녹색 실루엣만으로도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경이로운 전망을 뽐낸다. 216m의 날렵한 고층 건물(50층)을 설계한 미국 시카고의 건축 스튜디오 SOM과 더불어 태국의 A49 소속 건축가들은 룸피니 공원과 도심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어우러지는 매혹적인 전망을 즐길 수 있는 야외 테라스를 선사했다. 이 건물의 8층부터 24층까지 다양한 형태의 2백60개 객실이 포진해 있는데 최상층에는 펜

트하우스가 자리한다. 햇살 깃든 녹음을 음미하며 아침을 시작하고 싶다면 '룸피니 전망' 객실 예약을 권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23층에 자리한 '클럽 라운지'에서는 역시 황홀한 전망과 더불어 전당 컨서이지, 애프터눈 티 등을 곁들인 요간한 특화 서비스를 누릴 수 있으므로 호텔 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면 라운지 이용권을 고려해볼까.

매혹적인 전망과 황홀한 미식 스펙트럼... 팔색조 매력!

'리츠칼튼' 브랜드로 태국에서 최초로 선보인 더 리츠칼튼 방콕만이 지난 특장점은 '와이어리스 로드(Wireless Road, 태국어로는 Witthayu Rd)'라는 실제 주소명에서 유추해볼 수 있다. 과거 태국 귀족들의 주요 거주지였고 현재는 대사관이 모여 있는 이 동네에 태국 최초의 무선전신 시설이 위치했던 이역에서 불은 이름이다. 원래 방콕은 MRT 등 대중교통과 편리하게 연결돼 있기도 하다. 17ha가 넘는 면적으로 미국 뉴욕의 허드슨 야드보다 방대한 원 방콕 부지에는 연말마다 진취적인 개성과 역동성을 내세우는 럭셔리 스포츠센터 '포스트(Post) 1928'도 선보일 예정인데(현재는 '파리에드'와 '더 스토리즈라는 소핑몰을 운영 중이다), 이는 더 리츠 칼튼 호텔과 연결되는 구조다. 전통 속에서 피어난 현대적인 랜드마크라는 탄생 배경 자체가 '두 문명의 만남'이라는 콘셉트에 바탕을 둔다는 더

※ 1, 3~8 이미지 제공 The Ritz-Carlton, Bangkok

※ 호텔 주소: 189 Wireless Road, Lumpini, Pathumwan, Bangkok, Thailand, 10330

NEW LIPSTICK

샤넬 뷰티 루쥬 코코 밤 샤인 758 블러싱 핑크 부드러운 텍스처에 수분감이 풍부해 건조한 입술을 케어해주며 여러 번 덧발라도 뭉침 없이 화사한 핑크 컬러로 발색되어 만족스러웠다. 3g, 5만1천원. 문의 080-805-9638, www.chanel.com _by 에디터 신정임

Editor's Pick

화사한 립스틱부터 피부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려줄 스킨케어까지, 이토록 다채로운 3월의 뷰티 신제품 10.

PHOTOGRAPHED BY YOON JIYOUNG

라프레리 스킨 캐비아 리퀴드 리프트 새로 추가된 캐비아 마이크로 뉴트리언트 성분 덕일까. 독특한 제형에 한 번 놀라고, 수분 충전과 피부 탄력 효능에 두 번 놀랐다. 50ml 1백9만3천원대. 문의 02-6390-1170 _by 에디터 김하연

뉴 클리너 러쉬 모스틀리 세안만으로 모공 속 노폐물부터 묵은 각질까지 깨끗하게 제거해주는 듯한 느낌이 들 만큼 세정력이 우수하다. 225g 4만원. 문의 1644-2357 _by 에디터 신정민

디올 뷰티 어딕트 립 글로우 #203 시트리스
발광성, 보습력, 지속력,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다.
더욱이 무취, 무향이니라니,
오히려 좋아! 3.2g
5만원대. 문의
080-342-9500 _by
에디터 김하연

상테카이 르 파필론 컬렉션 님프 아이 트리오
시마, 세틴, 펄 등 원본 컬러로 구성되어 아이
메이크업에 포인트를 주기 좋다. 3g 각각 미정.
문의 070-4370-7511 _by 인턴 에디터 김보민



키스 핑크 마그넷 쿠션 02
미니 수분 에센스 성분을 담아 건강한 광채감을 선사하며 컴팩트한 사이즈로 휴대성이 좋다.
귀여운 진저브레드 키 링이 포인트. 7.5g 2만원대.
문의 070-4176-4616 _by
에디터 신정임

퍼퓸 드 말리 NEW 브리아 워스클루시브
화이트 플라워, 바닐라, 벨벳이 아몬드의 향이 조화를 이루며 우아하면서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해준다. 75ml 47만원대. 문의 02-3213-2088 _by
인턴 에디터 김보민

**에스티 로더
리-뉴트리브 얼티미트
다이아몬드 애이지
리버설 아이 크림**
크리미한 텍스처가 눈가 피부를 케어하고 애플리케이터가 부기 개선과 제품 흡수를 돋는다. 15ml 25만원대.
문의 02-6971-3212 _by
에디터 신정민

뉴 세럼

지방시 뷰티 스컬프추럴 세럼 피부 탄력에 부쩍 관심이 가던 터라 이 제품이 더욱 반기웠다. 브랜드에서 자체 개발한 콜라겐 성분이 피부 속 탄력을 끌어올려주니 매끈한 피부결은 덤. 30ml 22만2천원대.
문의 080-801-9500 _by
에디터 김하연

(*) 2025년 3월 1일 기준 출시 예정. 출시일은 출시국이나 출시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클라랑스 NEW 엑스트라-파밍
리프트-플럼핑 크림** 기존 제품보다 확실히 업그레이드된 느낌. 피부 강벽 강화 성분을 추가해 탄력 케어는 물론 피부를 건강하게 가꿔준다. 50ml 15만5천원. 문의 080-542-9052 _by
에디터 신정임



1 그라프 더 기프트 오브 러브 그라프가 파리 오트 쿠타르 워크에서 새로운 하이 주얼리 '더 기프트 오브 러브'를 선보였다. 다이아몬드로 만든 깃털이 연상되는 네크리스를 그리스 신화 속 아름다움과 낭만을 상징하는 참새 모티브로 각각 장식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참새 눈은 블루 사파이어, 부리는 제트 블랙 오닉스로 완성해 그라프의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2150-2320

2 투미 19 디그리 라이트 컬렉션 투미가 다가오는 봄을 맞이해 19 디그리 라이트(19 Degree Lite) 컬렉션을 출시했다. 이번 제품은 기존 19 디그리 컬렉션에서 테그리스(Tegris) 소재를 사용해 가벼운 무게와 튼튼한 내구성을 자랑하며, 블랙 그라파이트, 블러시, 티타늄 그레이 등 3가지 컬러로 구성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투미 공식 온라인 스토어(tumi.co.kr) 및 오프라인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539-8160

**3 샤넬 뷰티 코코 마드모아젤 오 드 브르팡 엉팡
스 펄스 스프레이** 샤넬 뷰티에서 코코 마드모아젤 오 드 브르팡 엉팡스 펄스 스프레이를 한정으로 출시했다. 진주 스트링과 골드 체인으로 이루어진 더블 스트랩으로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디자인이 돋보이며, 파솔리 향을 중심으로 상쾌한 시트러스와 중독적인 우디 앤비 향으로 이어진다. 문의 080-805-9638 www.chanel.com

4 반클리프 아펠 럭키 스프링 컬렉션 반클리프 아펠이 소중하게 여기는 테마인 자연과 행운을 하나로 풀어낸 럭키 스프링 컬렉션을 출시했다. 이번 컬렉션은 로즈 골드, 화이트 머더오브펄, 오닉스, 커닐리언의 컬러로 은방울꽃, 봉오리, 무당벌레, 매화꽃을 모티브로 제작했으며, 브로치, 이어링, 브레이슬릿 등 봄의 순수하고 우아한 정경을 담아낸 다양한 주얼리로 선보인다. 문의 1877-4128

5 파베르제 임페리탈리스 사파이어 태슬 이어링 영국 주얼리 브랜드 파베르제에서 왕비에게서 영감 받아 제작한 임페리탈 컬렉션의 임페리탈리스 사파이어 태슬 이어링을 선보였다. 화이트 다이아몬드로 둘러싸인 라운드 사파이어 중앙 스톤과 1백66개의 총 22.55개의 사파이어 비즈로 이루어진 태슬 디자인이 특징이다. 문의 02-3442-4706

6 지방시 뷰티 드 지방시 컬렉션 지방시 뷰티가 젠더 프리 향수 드 지방시 컬렉션에서 새로운 향수를 공개했다. 유래함과 상쾌함을 콘셉트로 제작한 머스크 시트러스 향 '지방시 랑팡 테리볼', 소나무 애센스와 레몬의 조화를 느낄 수 있는 시트러스 피忿치드 향 '드 지방시 데조베이상', 그린 만다린 앤센스와



7 련된 분위기를 배가했다. 문의 02-3467-6560

오렌지 블러섬으로 우아한 분위기를 선사해주는 시트러스 우드 향 '드 지방시 타파제르' 등 3가지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80-801-9500

7 랑방 파리 바스크 미디 드레스 프랑스 패션 하우스 랑방 파리에서 전느 랑방의 상징적인 '로브 드 스타일'에서 영감받은 바스크 미디 드레스를 제작한다. 스커트 정면의 불룩한 있는 일체적인 실루엣, 크림색 원단과 스트라이프 원단을 위아래로 조화롭게 매치한 것이 특징이다. 문의 02-3438-6186

8 포멜라토 누도 미니 컬렉션 포멜라토에서 시그너처 원석 커팅 방식을 통해 기존 누도 컬렉션보다 더 작은 크기로 선보인 누도 미니 컬렉션을 공개했다. 이번 컬렉션 모든 제품은 로즈 골드로 제작했으며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젠스톤의 스웨어 디테일에 스카이 블루 토파즈와 런던 블루 토파즈, 2가지 컬러에 브레이슬릿과 네크리스, 이어링의 3종 주얼리로 선보였다. 문의 02-3143-9486

9 셀린느 배스 & 보디 셀린느 오뜨 퍼퓸리 컬렉션의 시그너처 향인 파리드로 향을 포함한 배스 & 보디 신제품을 출시했다. 기존에 없던 리퀴드 솔과 헤어 미스트, 보디로션 등으로 선보였으며 셀린느 청담 플래그십과 공식 웹사이트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1577-8841

10 랑프 로렌 2025 프리-스프링 시즌 셋업 랑프 로렌에서 다가오는 봄에 잘 어울리는 2025 프리-스프링 시즌 셋업을 제작한다. 실크 리넨 트윌 소재로 제작해 부드럽고 편안한 착용감을 자랑하는 레셀 재킷과 남성복을 모티브로 웨스트 포켓, 웨이스트 디자인 등의 디테일을 더한 제이든 베스트, 하이 라이즈와 와이드 팁 플리츠 팬츠로 구성해 우아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배가했다. 문의 02-3467-6560

11 뽀아레 로브 로씨옹 & 로브 광쌍뜨레 뽀아레 에서 다가오는 봄에 적합한 수분 공급 제품으로 '로브 로씨옹 & 로브 광쌍뜨레'를 제작한다. 수분 응집력이 뛰어난 멘팅лен글리커풀을 함유한 미스트 타입의 수분 토너 '로브 로씨옹'과 캐비어 라임 성분(инг리 라임 열매 추출물)을 혼유해 수분을 더해주는 동시에 고농축 수분 에너지를 형성해주는 '로브 광쌍뜨레'로 최적의 피부 컨디션을 선사한다. 문의 02-310-5025





REACH FOR THE CROWN



THE DAY-DATE

ROLEX